

2023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12.26.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5	2	15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이인복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6	-	1	12	-	12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2	-	-	12

다. 전월(11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글로벌대학 관련 보도> 글로벌대학 선정에 대한 충청 대학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후속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정치력의 부재 또는 지역 대학의 전략 부재일수도 있겠지만 생존 전략에 대해 집중 보도하겠음 <23. 12월 조치>	'23.11월
보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보도>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인식되지 않게 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등 객관적으로 다루어주었으면 함	정신질환자를 묻지마 범죄로 연결 짓는 것은 인권 감수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심층 취재를 할 예정임 <23. 12월 조치>	'23.11월
보도	<대전시 회의 보도 영상> 대전시장의 회의 장면에 지난번 명예 퇴직한 행정부시장이 보이던데 자료 영상이 적절치 않아 보임.	기사가 편집됨으로 넘어가면서 자료 영상을 마감 시간에 쫓겨 편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가 발생한 일인데 꼼꼼하게 챙기겠음 <23. 12월 조치>	'23.11월
보도	<지자체 예산 관련 보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민들이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사전에 보도해 주길 바람	잔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하는지의도적인 취재였는데 내년 예산에 어떤 것이 소홀한지 꼼꼼하게 챙기겠음 <23. 12월 조치>	'23.11월
교양	<시사M-전동리보드 관련> 전동리보드는 젊은이들의 운송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쁜 시각보다는 좋은 시각으로 지향할 부분들을 방송해 주었으면 함	PD가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음. <23. 12월 조치>	'23.11월
교양	<인생 내컷> 1인칭 시점 휴먼다큐멘터리인데 미혼 모시설 관련 내용은 시설안내가 너무 많아 지루했음. 휴먼에 포커스를 두었으면 함	충북에서 제작한건데 시설에 들어온 미혼모들의 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음. 충북과 조율하도록 하겠음 <23. 12월 조치>	'23.11월
교양	<금산일기> 박순전씨가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인상을 까는 모습이 있었는데 머리위에 걸친 선글라스가 너무 어색해 보였음.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썼지만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제작스태프들이 생각을 해줘야 완성되는 것임. 주의하도록 하겠음 <23. 12월 조치>	'23.11월
교양	<시사M-사회 문제 발생 원인 관련> 사회 현상에 대해 주제를 잘 잡으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건지 포커스를 주셨으면 함	지역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이슈들과 지역 고유의 이슈들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겠음 <23. 12월 조치>	'23.11월
교양	<라디오 다큐-부모부양보고서> 드라마타이즈 설정에서 치매부모 부양은 효녀 효자들도 힘들다는 보편적인 접근과 TV매체에서도 다루어 주었으면 함.	앞부분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복선을 깔아 놓은 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힘들다는 보편적인 접근에 유념하겠다고 여러 매체로 제작을 고려하고 있음 <23. 12월 조치>	'23.11월
교양	<시사M - 진행자> 2명의 진행자중 한분은 전문 진행자가 아니다 보니 몸을 좌우로 흔드는 습관이 있어 불안해 보임	진행자 태도에 대해 제작진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음 <23. 12월 조치>	'23.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12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4.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4.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4.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키워드 2023 보도> 불규칙적으로 방송하다 보니 체계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음.	회의록 첨부	○		
보도	<JMS 판결 보도> 중형을 받은 피고인인데 피고측 기자회견 장면을 방송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자체 성과 보도> 지자체가 국비를 따오고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걸 핵심 성과로 보도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한 사업들을 평가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서구보건소장 임명 보도> 대전시 행정에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전문직 우선 임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	회의록 첨부	○		
보도	<단신 보도>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아침 뉴스에서 녹음처럼 일정한 톤으로 단신 아이템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억양이나 포인트를 넣어서 감정을 실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진행방식 구성>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대화하는 식으로 구성했는데 지루함을 깨는 구성방식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송전탑> 지하 송전탑 문제는 화력발전소 폐쇄가 되면 사라지는 이슈인데 중장기 과제도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에너지 자립도> 충남은 에너지 자립도가 거의 1등이고 대전은 거의 꼴지 인데 이런 공존 상황들을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전세사기> 전세 관련해서 계속 불안감만 강조하지 말고 대안의 실현 가능 여부와 안정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지역 소재> 타 지역 이야기가 더 많이 방송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문화가 소식> 문화와 예술은 다른 용어인데 막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술부도 깊게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의견)	<라디오캠페인 멘트 수정 요청> 화재 예방 캠페인중 “가능한 주변에 빨리 알려”에서 “가능한”이 아닌 “가능한 한”으로 수정 바람	회의록 첨부	○		

2023년 12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12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이인복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12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12월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올라왔는데요. 행사 영상 업로드 요청 1건, 홍보 영상 삭제 요청 1건, 라디오 캠페인 멘트 수정 요청 1건, 민원 등 기타 제보가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방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송사업자 평가가 있는데 대전MBC가 지역 MBC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민방까지 포함하면 2위고요. 1위는 KNN입니다. 내년에는 KNN도 앞서서 지역방송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를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덕 50년 이슈, 내년도 정부예산 R&D 예산삭감 문제 등 지역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고 안 좋은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지역 방송사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마는 재원과 인력의 문제 때문에 허덕허덕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지역 시청자들과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미진하지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희망차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다음은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올해 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상을 시상하게 돼서 매우 보람이 큼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표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작품이 잘 선정된 것 같고요. 전체 회의에서 시상할 수 있어서 12월 위원회가 더욱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의미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동 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정동 위원

<시사M>은 이번 달에 한 회만 제작을 했더라고요. 송전탑 갈등 관련해서 방송해 주셨는데 과거에 밀양이나 다른 지역 얘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충남 해변 쪽의 수많은 발전소들과 수도 권으로 가는 대전도 다른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대전도 많은 인구가 있지만 실제 발전하는 곳은 거의 없는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자치분권 얘기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전세 사기 관련 보도는 계속 나오긴 했지만 특히 이번에 피해자가 20~30대에 86%나 된다는 것을 짚은 건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단순히 미숙하고 잘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동산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MBC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서 같이 다뤄야 되는데 그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잘 봤습니다.

올해 총평을 하자면 계속 요청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사프로그램 부활을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부활 됐고 방식도 달라지고 다루는 주제도 지역과 관련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또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생 내컷>도 시작을 했는데 방송에서 비춰주던 성공한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도 부문에서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계속 고민하고 후속 취재나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갔던 부분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3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전MBC 구성원께서 제작 보도 인프라 계획까지 많은 고생을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장래숙 위원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장래속 위원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려는 노력에 늘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너무 애써주셨고 처음 시청자 위원으로 왔을 때 청소년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는데요. 애써주신 덕분에 간간히 청소년 관련 보도도 해주시고 좋은 프로그램들 소개해 주셔서 다른 방송국에서 역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작된 죽음> 본방을 봤는데요. 재조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봤는데 새로운 점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봄’은 독재 정권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의 탐욕을 재조명해서 천만관객과 MZ세대를 사로잡는 느낌이었다면 <조작된 죽음>도 새롭게 인간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재조명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손병우 위원

다음에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주영 위원

<시사M>에서 송전탑과 전세 사기 부분을 다뤄주셨는데요. 전세 사기는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었는데 송전탑 같은 경우는 진행하시는 분과 패널로 나오신 교수님이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식으로 구성하다 보니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지루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소한 주제에 대한 지루함을 깰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언급은 하셨지만 다가구 주택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전세로 운영돼 왔거든요. 문제없이 잘 진행돼 왔었는데 빈틈을 이용한 무리한 신축과 중개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 것을 빨리 단절시켜서 그래도 전세가 안전하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불안감을 강조하다 보면 정상적인 전세가 안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들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데 반환이 안 돼서 그 피해가 결국 또 임차인한테 가거든요. 안정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보도를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이게 사경제 영역이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하고 배상이나 보상 부분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도 인식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소통위원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LH에서 선구제를 하고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으면서 그 수입으로 피해를 보존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를 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피해자들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해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불통이라는 측면보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LH나 정부가 문제인식을 할 수 있게 언론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도에서 키워드로 본 2023을 하시던데요. 이게 언제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월요일에 하다가 수요일에 하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다. 보도할 게 없으면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도가 떨어지게 방송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23키워드는 법원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상 판결과 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라는 거였는데요. 물론 첫날에 가장 중요한 걸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후에 교권 추락 부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중을 본다면 교권 추락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왜 첫 번째 키워드를 불상 판결로 했을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응급 입원에 대해서 다뤄주신 건 감사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관련해서 그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게 잘 활용돼야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JMS 보도 관련해서는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인데 피고인 측이 부당하다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화면을 자꾸 보여줘서 부당한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세밀한 의견이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시사M>에서 전세 사기와 송전탑 이슈를 얘기해 주셨는데 송전탑 이슈가 충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농촌 지역 중심으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C에서 잘 다뤄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 인터뷰 내용들 중에 송전탑 이슈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있었는데 주민 한 분께서 이곳에서 생산해서 도시로 보내는 이 전기를 위해서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서울이나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보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고 농작물도 피해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결국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내가 사는 곳에서 직접 소비하게끔 하는 그런 에너지 체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 분들께서 직접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 자립도와 관련된 얘기도 짧게 나왔어요. 전국 화력발전소중 절반 정도가 충남도에 몰려 있고 전력 자립도 역시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는데 생산량까지 비교하면 거의 1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도 이슈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러니한 건 대전MBC가 대전 충남 세종을 위주로 방송을 하는데 대전이 전력 자립도가 꼴찌입니다. 우리 지역 안에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꼴등인 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상황들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송전탑 이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화력발전소 폐쇄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전탑 이슈 같은 경우도 결국 국면이 새롭게 바뀌게 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 송전탑으로 옮기는 이슈들도 결국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그 대안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 중장기적인 과제들로 잘 다뤄가지고 해결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께서 나오셔서 몇 가지 대안들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합리적인 부분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대안들이 진짜 실현 가능하고 실제로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지, 합리적인 얘기인지를 전문가분들과 같이 토론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의 얘기는 안 들리거든요. 무리하게 대출을 계속해주면서 전세 사기를 방관하고 어느 정도 일조를 했었던 부분들이 금융권에 분명히 있었고 금융권이 선순위 채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금융권이나 국토부, 혹은 피해자들이나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언론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법이나 입법 영역에서의 구멍에 대한 얘기들만 계속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서 대안들이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 부분은 한 해의 주요한 키워드들을 돌아보고 했는데 각 내용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데 다만 충남이 됐든 대전이 됐든 각 지자체의 주요 키워드들을 잡을 때 어느 순간부터 주요 언론사들이 지자체가 국비를 얼마를 따왔고 어떤 주요한 사업에 선정됐고 이게 핵심적인 성과다 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반화됐더라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부사업에 돈을 따온 건데 그게 왜 성과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계나 국비를 따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자체의 핵심적인 성과에 대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단순히 국비를 얼마 따왔고 산업단지가 뭐가 됐고 이런 것보다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뭔가 했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구체적인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인복 위원

대전MBC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야기에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좋다>라는 데일리 프로그램에서 지역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다뤄주었는데 <오늘M>은 지금 수목만 방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병천순대를 다루면서 공동기획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목호항 이야기 나오고 하던데 지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도 부족한 시간에 오히려 다른 지역 얘기가 더 많이 방송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정보는 서울MBC에서도 충분히 노출되는 부분들이라서 대전MBC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타 지역 정보들 보다는 지역에 밀착해서 방송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전해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예술은 분명히 다른 용어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화와 예술을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M>에서 '문화가 소식입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문화가 소식이라는 게 뭘지 예술계 소식도 아니고 막연하거든요.

청년 만화가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뭘 함께 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가 돼 있다는 건지 문화가 될 거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가라는 용어도 다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분야에 대한 소식도 일상에서 누가 향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 생태계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전업 예술가의 생산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즐기는 생활 예술 그리고 향유, 이 관점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정작 전업으로 전문가들의 예술이 소개되고 그걸 깊게 다루주는 부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역 예술계를 잘 다루주는 부분으로 활용한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법으로 지정돼서 미술 시장과 공연 시장을 영화 티켓 박스 오픈하듯이 계속 거래가 있고 증권 시장처럼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 시장처럼 미술 시장이 어떻게 공연 시장은 어떻게 지역에서는 어떤 공연들이 예매 순위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이진희 위원님 의견 주시죠.

이진희 위원

회의록을 보니 창사60주년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더라고요. 1년 지나고 보니

의견도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와 제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작을 위해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스를 봐도 발로 많이 뛰어 다니시고 다른 프로그램도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모두 노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사M> 초반에 우리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중구청 부구청장 문제라든가 의원 탈당을 간단하게 다뤘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다뤄주었으면 합니다. 소아과와 관련해서는 소아과 앱 신청 문제를 다루는 줄 알았는데 소아과 부족에 대해 운을 띄우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의료 공백 대책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D가 간다> 송전탑은 깊이 있게 여러 시각에서 다뤄주셨는데 약자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지역의 사망자 수와 투병자 수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을 보면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전문가께서 재정문제로 다들 생각을 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이건 생명과 안전의 문제고 약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혼자서 풀어야 할 수 없는 것을 언론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재정이나 제도의 문제로만 접근할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 사회가 어디에 뒀어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언론에서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결론이 더 잘 나와서 10여 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윤지석 위원님 의견 주시죠.

윤지석 위원

4분기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중에서 MBC 18%, KBS 16%, YTN 12%로 MBC 1위를 축하드립니다. MBC가 더욱 더 신뢰 받고 가장 사랑받는 채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2월 16일에 방영된 <시사M>에서 주요 이슈로 중구청 부구청장 임명에 관한 것과 필수 진료과의 소아과 전공의 부족에 관해서 다루었는데 너무 수박 겉핥기 같이 깊이가 얇았고 기자의 요약된 생각만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구청과 구민들은 이장우 시장이 임명한 이동한 부구청장이 구정에 관한 것보다는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3개월짜리 부구청장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데, 실제 중구 구민이나 중구청 직원들의 솔직한 인터뷰 없이 기자의 생각만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속적으로 심층 취재하여 이런 우려가 차단되거나 혹 부구청장의 자리가 4월에 있을 보궐선

거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중구민과 중구청 직원의 시각을 언론이라면 당연히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부구청장의 임명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지켜지도록 더욱 더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마땅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수과 부족사태에 관해서 보도하셨는데 최소한 대전소아과의사회와 대전산부인과의사회의 인터뷰 혹은 대한소아과의사회 회장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임현택 소아과학회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출산도 줄고, 결혼률도 줄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준비한다 해도 전문의가 10년 후에나 나오는데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오히려 현재의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수 진료 환경인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떠나서 이와 전혀 관련 없는 타과 진료를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다시 청진기를 들고, 메스를 들고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인데 전혀 의료계를 이해 못하고 필수과 부족사태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매도하는 형태의 관제 언론 행태는 적어도 MBC만큼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PD가 간다>에서 송전탑 문제는 이미 밀양 송전탑 사태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 시간 배분에 있어서 중구청의 부구청장 임명과 필수의료는 많은 중구구민과 관련된 문제이고 필수 의료는 모든 시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고작 10분 내외이며 송전탑에는 35분을 할애한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미 송전탑 문제는 많이 밝혀져 있고 건강에 있어서는 명백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 보다는 사회를 화합하고 통합하고 치유하는 데에 국민의 전파가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시사M> 3회차 방송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이웃을 살리는 평범한 슈퍼맨'이란 미담내용이 있었는데, 12월 16일에는 '풍문으로 들었소'도 빠졌습니다. 특히 12월은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달인데 미담 뉴스가 빠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JMS총재 정명석씨 보도는 최근 수일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데 한 줄짜리 뉴스나 15초 이내에 간략하게 사실만 전달할 내용인데 어떤 날은 2분 19초에 걸쳐서 정명석씨 측의 주장을 인터뷰까지 내 보내는 것은 공익 방송의 전파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보건소장 임명에 관한 12월 20일자 뉴스인데요. 이미 의료계에는 서구보건소장 공고가 나기 전에 000이라는 행정직 직원이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임용되었는데 최근 대전시 행정에 있어서 보건소장 임명에 의사전문직의 우선 임용 원칙과 중구청의 부구청장 임명에 있어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대전MBC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매달 시청자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의견도 전달하고 듣고 하면서 느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뉴스를 보면서 전달 방식에 대해서 생각든 게 있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대전MBC만의 특징은 아니고 모든 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단신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람이 전달하기 보다는 녹음된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퍼스널리티나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할 때는 또박또박 전달이 되는 기능을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주목 효과나 정보를 더 얻는 서비스는 억제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문화누리카드 11만 원 사라져' 라는 보도를 보면 대상자나 마음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긴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무색무취하게 억양을 최소화해서 변화 없이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 내용 속에 어느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지표적인 기능이 없어져버리는 느낌을 받는데 방송사들의 아침 단신 뉴스를 보면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서 진행자들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정한 톤으로 아이템을 똑같은 톤으로 전달하는데 대전MBC에서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를 전달할 때 억양이든 정보든 2차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달을 해드렸고요. 답변을 진행해 주시죠.

최기웅 보도국장

뉴스라고 하면 기자가 나와서 하는 리포트, 기자 없이 단신이라고 하는 스트레이트들로 구성이 되는데 과거 방송 뉴스에서는 리포트에 힘을 많이 주고 스트레이트들은 힘을 덜 주던 구조였죠. 매체들이 다양화되면서 특히 유튜브, SNS, 여러 가지 인터넷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스들이 많아지면서 그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방송이라고 해서 꼭 리포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리포트와 스트레이트가 조화롭게 될 수 있게 근래 스트레이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30~40초가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스트레이트에 힘이 있어야 전체적인 뉴스들이 살아나고 뉴스의 방향과 기조가 맞아가는 차원도 있어서 스트레이트를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유통되는 뉴스로 봤을 때는 긴 형태의 스트레이트는 신문처럼 스토리텔링이 잘 녹아있는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전달자의 진정성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편성국장도 같이 고민해서 뉴스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TV뉴스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지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보도 관련해서 사건 발생과 현황 특징을 분석했고, 20~30대가 첫 출발하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자본력도 빈약하다 보니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도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부분이 이 분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지 주목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솔루션 저널리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정상화도 필요하고요. 임대 임차인들이 소화가 되지 않아 패닉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위험하고 저렴한 쪽의 주거 형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지, 당연히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피해자 대책위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게 수용되지 않더라도 실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장이 돈 놓고 돈 먹기 형태로 왜곡된 시장 구조가 있었죠. 도덕적 해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 단계에서 규제하고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단속과 징계도 필요하다 라는 쪽으로 보도 방향의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 2023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패턴 환경이 짙었습니다. 인력과 계절적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 시점에 완성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시작은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반출 문화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판결과 촉법 소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데일리 뉴스라고 하더라도 기획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면서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JMS 보도 관련해서 소송은 다섯 달 만에 재개된 선고 공판이었는데 기소 단계에서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선고 공판 관련해서는 천 명 정도가 법원 앞에 와서 법원에서도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죠. 그래서 경비 병력, 경찰 병력을 요청해서 대응했고 1심 선고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날 분위기를 스케치 하다 보니 뉴스에 들어간 부분인데 면제부나 항변권으로 준 건 아니고 취재 과정에서 분위기가 그랬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키워드 2023 지자체 성과 관련해서 예산 따먹기라고 하죠. 예산을 얼마나 유치했는지 경제적 보도들이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들도 있죠. 보통 지자체들이 지자체장들의 성과로 내몰고 있는 것들인데 올해는 지역 의제들이라고 하는 현안들이 절반 정도밖에 성사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예산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제도가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에 집중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했던 부분은 행정이 불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전의 경우 주민자치 예산의 대폭삭감이 있었는데 소규모 예산

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삭감되거나 줄었거든요.

새해에는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 예산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집행되고 추진되는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명 등 행정상의 원칙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솔루션 저널리즘 관련해서는 사소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가자라는 게 지역 방송 뉴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인클럽 대상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교육의 현실과 교권을 돌아볼 수 있게 여러 차례 기획 보도를 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올해 대상을 수상했는데 특종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하는 보도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시사M> 송전탑과 전세사기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순한 상황에 대한 문제 지적과 일정 부분 대안을 제시하려고 나름대로는 큰 틀에서 솔루션저널리즘을 노력하고 있고요. 송전탑 아이템은 제작년에 '철탑공화국'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당시에는 자연보호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그 송전탑이 실제 설치가 되고 그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문제 그리고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겠지만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관련해서는 추후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구에 청년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사기 건수에서 전국에서 거의 순위권을 다투는 지역인데요. 지역방송 차원에서 이 지점은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줘야 최소한의 대안들이나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방송한 대표적인 아이템들이었고요.

지역의 이런 상황들을 보도나 시사프로그램에서 짚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구현해 낼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도나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는 지점들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은 제작물 안에서는 어렵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측면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의견들이 피해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진짜 대안으로서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특별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왜 안 되는지

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을 피해자들이 내놓는 대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해서 짚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 좋다는 일주일에 5일을 진행을 했고 오늘M도 처음에 3일이었다가 2일로 줄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5일 제작할 때는 자체 제작 꼭지가 한 꼭지씩 들어갔는데 날짜가 줄어든 이유는 하루에 네 꼭지 중에서 두 꼭지는 최소한 지역 소식이 나가야 되는데 인적이거나 예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능한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구성한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대석이 들어가게 되면 타계열사 꼭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꼭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인력이나 재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역 밀착형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가 소식'이라는 이름은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 차이를 쉽게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화가 소식'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져야 되냐 깊이가 더 들어가야 되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죠. 균형을 맞추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거고 제 생각도 다르긴 하겠지만 지역에서는 문화를 다루는 꼭지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유지는 계속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양과 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겨두고 좋은 말씀 주시면 심도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프로그램과 뉴스에 대해서 시간 내서 보고 비평 혹은 의견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김환균 사장님 마무리 인사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은 가볍게 회의가 진행되는 듯했는데 역시 위원님들께서 다들 전문 영역이 있으셔서 아주 깊이 있고 유익한 그런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모쪼록 알찬 시청자 위원회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환균 사장

대전MBC가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보도해서 법 제정까지 가게 했는데 벌써 5년이 됐고 지역 언론사로서는 큰 역할을 한 거죠. 여전히 그것이 완성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더라도 그 비슷한 게 저는 송전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년에 다큐멘터리에서 문제 제기한 게 전기는 수도권에서 쓰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지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타까운 게 분명히 송전탑 밑에 사는 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공론화되지 못하고 주요 이슈로 등장해 문제 제기는 하는데 증거가 있냐는 지점에서 막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외국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는 송전철탑이 없어요. 한참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 송전탑과 발전소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대전 MBC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겁니다.

한 가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한전 쪽 관계자들에게 지하로 빼면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그건 되는데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자체가 내냐 한전이 내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고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할 때 제발 쉽게 해달라고 하는데 요. 문화고 예술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내면의 심연’, ‘심상’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사람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주 정밀하게 그린 그림을 보고 제가 그리는 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봤는데 1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되지 왜 저걸 1년씩이나 그리고 있지?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고 왜 저러고 있지 하는 데서 예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처럼 쉽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론의 재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1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